

제일 소명

*소명

소명이란,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두 계명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지만, 특히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명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공동체가 하는 모든 활동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구별된 공동체의 일원이다(창12:1-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엡3:16-19).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다(마22:36-4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여기에 존재한다(마5:13-16).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생의 근본 목적에서부터 구체적 직업이나 활동에 대한 안내를 아우른다. 소명은 성직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써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 소명이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제일 소명은 자연스럽게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으로 이어진다.

*대개는 떨기나무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온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높이 들린 보좌에[서]” 말씀하신 것도 단 한 번뿐이었다(시6:1). 하나님의 가장 큰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 우리가 이에 동참하고 이를 위해 사는 것이다. 동시에 직업이나 은사, 관계 등의 문제에 대한 인도 역시 포함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세상과 자신의 삶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됐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아름다움이나 기쁨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이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불편한 진실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의심, 아픔, 고통이 있다. 인류는 이 일들에 대하여 역사 이래 교회 안팎에서 많은 질문을 던져 왔다.

오늘날처럼 복잡성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포괄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쉽게 거부하고 부인한다. 논란거리는 많은 데 비해 제대로 된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류 스스로 존재한다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시각이 가장 그럴듯해 보인다.

인간은 정말 혼자인가? 신은 없는가? 텅 빈 우주에서 단지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살다가 고통이나 기쁨이라 불리는 것들을 경험하고 죽는 건가? 과연 희망은 존재하는가? 빈곤과 폭력과 불의가 넘쳐 나는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가?

철학적인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사실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질문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질문에 대해 참된 말과 행동으로 대답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만 분명해진다.

*왜 소명이 중요한가

성경은 하나님이 관념과 형상만 있는 신이 아닌 사랑과 관계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한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시고, 관계하시고, 드러내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창조 세계와 이스라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나타나 있다. 은혜가 드러나고 진리가 실현되는 이야기다. 앞에 나열한 말들은 소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계명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삶을 희생함으로 또 다른 삶을 찾게 된다. 예배와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행위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잃는 동시에 새로운 삶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인류를 위한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는 살아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비전이고 예수님이 보여 주고자 했던 바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소명을 위해 창조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갈등과 애매모호함 속에서 살아간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나 동료가 더 큰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도 한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여 주는 것이라고는 교회 건물, 행사, 음악, 성경공부, 사소한 프로젝트, 예산 지원 요청 뿐일 때가 많다.

우리의 소명은 두꺼운 겹데기에서 싸이고 파묻혀, 생명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예배보다 인터넷에 떠도는 애완동물 동영상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성을 채워주는 것 같다. 뭔가 헤어나오기 어려운 소용돌이에 갇힌 느낌이다.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을 초청하고 휘황찬란한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진짜 해결책은 성경이 선포하는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 즉 가장 필요한 곳에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마크 래버튼, 『제일 소명』 중

